

국별 리포트

#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4.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의견 .....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48천 Km <sup>2</sup>	GDP	991억 달러 (2010년)
인구	164.5백만 명 (2010년)	1인당 GDP	606달러 (2010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Taka (Tk)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69.65 (2010)

-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는 인도와 미얀마, 북쪽과 서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벵갈만과 접하고 있음.
- 1947년 인도(주로 힌두교)에서 분리 독립한 서 파키스탄과 동 벵갈(양 지역 모두 주로 이슬람교)이 함께 파키스탄을 건립한 후, 1955년 동 벵갈이 동 파키스탄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나, 지리적으로 소외와 불만을 느꼈던 동 파키스탄이 1971년 파키스탄에서 탈퇴하여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였음.
- 2010년 기준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이고, 전체 노동인구의 약 45%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후진국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세계 제1위의 인구밀도(2010년 약 1,096명/km<sup>2</sup>)를 기록하고 있으며, 몬순 기후에 속해 매년 홍수와 사이클론으로 전 국토의 1/3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인프라가 열악해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여야간 정쟁 격화로 군부가 2007년 1월 무혈쿠데타로 과도정부를 수립하여 2년간 통치하였으나, 총선의 무기한 연기와 이로 인한 정국 불안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결국 2008년 12월 총선을 실시하였으며, 이 총선에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연맹(AL)이 최대 의석을 확보하면서 하시나 총리가 1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sup>f</sup>
경제성장률	6.4	6.2	5.7	5.8	6.0
재정수지 / GDP	-3.7	-6.2	-4.1	-4.5	-5.2
소비자물가상승률	9.1	8.9	5.4	8.1	8.2

자료: IMF 및 EIU.

#### □ 농업부문의 안정적인 생산 등을 기반으로 경제성장률 상승

- 방글라데시 경제는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대외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6%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음.
- 2009년에는 GDP의 20%를 차지하는 농업부문 생산이 2007년의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해외근로자 송금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상품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약 3% 감소하는 등 대외부문이 아직 침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감소한 5.7%를 기록함.
- 2010년에는 농업부문의 성장, 양허성 차관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투자 활성화, 세계 경제의 회복 추세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도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로 6.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 2007년에는 고유가 및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주요 쌀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 등에 따른 주요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1%로 상승하였으며, 2008년에도 정부의 유가 보조금 삭감에 따라 8.9%를 기록하였음.
- 2009년 중에는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4%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 중에는 국제유가 및 주요 교역상품 가격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8.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도 수입제품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약 7.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식료품 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기후나 농산물의 수확량에 따라 물가 수준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 세수 부족과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방글라데시는 낮은 세금 징수율(2009/10년 기준 GDP의 11.5%), 취약한 세수기반, 복잡한 세제 등으로 인하여 세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2009년에는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시켜 재정적자가 GDP의 4.1%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중 정부지출 증가폭이 세입 증가폭을 상회하여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5%로 다소 확대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세수 확대를 통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금징수율이 매우 저조함. 반면 공급이 부족한 전력, 물, 가스 등 필수 자원을 위한 지원과 복지지출 확대로 인해 정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1년에도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대비 5.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 지속

- 세제가 복잡하고 예외조항이 존재하여 부패가 만연함에 따라 직접세 징수율이 세계 최하위임.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0/11년 소득세 환급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혁하여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세 등 무역세와 법인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직접세 중 소득세가 정부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 기준 22.1%에 불과함.

#### □ 높은 수입의존도

- 방글라데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자본재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의 GDP 대비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26%로 추정됨.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주요 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 농업 및 의류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에 전체 노동력의 45%가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가 전체의 72%에 달해 정부는 농업분야 개발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 의류산업이 대부분을 차지(GDP의 17%, 총수출의 80%)하는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또한 총수출의 60% 이상이 미국과 유럽지역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 □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

- 방글라데시는 몬순기후에 속해 7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사이클론이 자주 상륙하는데, 이에 대비한 인프라가 열악하여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 등 농업 분야에 타격을 자주 입음.

- 식료품 가격이 전체 소비자물가의 60%를 차지하는 등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 경제 구조상 잦은 자연재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줌.

## 나. 성장 잠재력

###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 1억 6,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중 95%가 만 65세 이하(15~65세는 61%)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 수준이 낮아 의류 및 신발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유리함. 이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 생산하던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중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시설을 방글라데시로 이전하고 있음.
- 낮은 노동생산성의 제고와 열악한 노사관계의 개선이 외국 기업들의 유치 확대에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됨.

### □ 풍부한 천연가스 및 석탄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2010년 1월 기준 1,954억m<sup>3</sup>에 달하고 석탄 매장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 방글라데시 정부는 가스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가스산업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고, 이후 미국, 영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 현재 압축천연가스(CNG)가 차량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900만 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등 양호한 가스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우리나라 GS칼텍스도 2010년 2월 미국 정유사인 쉘브론(Chevron)으로부터 방글라데시 블록 7광구\* 탐사전의 지분 45%를 매입하여 방글라데시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 블록7 광구는 면적이 7,500km<sup>2</sup>에 이르며 이미 다수의 가스전이 발견된 지역에 인접해 가스자원이 부존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경제구조 개혁과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에 따른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경제구조 개혁과 민간투자 장려,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왔음.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부과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출가공무역지구를 설치하고 10년 동안 수출기업에 면세를 적용하는 면세기간 제도(tax holidays) 등 세제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또한 방글라데시는 군수산업 및 원자력 발전, 주화 및 화폐 인쇄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외국에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미국 및 유럽국들로부터 가스, 석탄 등의 자원개발과 금융, 병원, 이동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식료품 가격 규제 및 신용대출 증가 억제로 물가의 급격한 상승 방지

-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변동환율제 시행으로 해외 근로자 송금 및 의류산업 수출이 증가하여 외화 유입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으나, 정부의 식료품 가격 규제 및 완만한 신용대출 증가세로 급격한 물가 상승은 발생하지 않음.
- 식료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통화 당국의 급격한 화폐공급 확대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sup>e</sup>	2011 <sup>f</sup>
경 상 수 지	857	926	3,345	2,404	751
경 상 수 지 / GDP	1.3	1.2	3.7	2.4	0.7
상 품 수 지	-4,195	-6,004	-4,693	-5,369	-6,708
수 출	12,474	15,502	15,067	15,971	18,047
수 입	16,669	21,506	19,760	21,341	24,755
외 환 보 유 액	5,182	5,689	10,219	10,109	..

자료: IFS, EIU 및 GDF.

□ 수출증가 둔화와 수입수요 증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

- 2010년에는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이 2009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중국산 섬유제품에 적용되던 미국 및 EU의 세이프가드 해제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의류수출 성장이 둔화되어 상품수출 증가폭도 작게 나타남.
- 반면 주요 수입품인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와 수입상품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입액은 경제 위기 전인 2008년 수준을 회복하여 2010년에 약 213억 달러를 기록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2009년 47억 달러에서 2010년 54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EU가 방글라데시의 수출의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수입 원료 허용비율을 기존의 30%에서 70%로 더욱 관대하게 적용함에 따라 EU 시장에 대한 의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의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2011년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6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시현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등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경상이전 수지 흑자로 200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해외근로자 송금액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품수지 적자 규모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약 24억 달러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더욱 감소하여 약 1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많이 진출한 국가들에서 자국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해고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근로자 송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글라데시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아와미연맹이 압도적 총선 승리 후 안정적 집권

- 2006년 10월 칼레다 지아(Khaleda Zia) 총리의 임기 종료 후 총선의 공정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격화되자, 2007년 1월 군부가 무혈쿠데타로 과도정부를 수립하였음. 이후 총선의 무기한 연기와 이로 인한 정국 불안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과도정부는 2008년 12월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총선을 실시하였음.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Wajed) 총수가 이끄는 아와미연맹(Awami League: AL)이 총선에서 총 300석 중 229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14개 정당으로 구성된 대동맹(Grand Alliance)의 지지 없이도 집권이 가능하게 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중임.

##### □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의 영향력 확대

- 2011년 1월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주요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 지지 후보 100명, 아와미연맹 소속 후보 96명이 당선되어 그동안 야당을 과소평가했던 아와미연맹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ssion: EC)의 선거 집행 및 관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으며, 2014년 총선이 예정되어 선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됨.

##### □ 아와미연맹의 지지도 하락

- 지난 2010년 12월에 수행된 설문조사에서 아와미연맹의 정책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2008년 집권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특히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2009년 3월 설문조사에서는 71%가 찬성하였으나, 최근 51%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인플레이션과 전력 공급, 부정부패가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됨.

## 2. 사회동향

### □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폭력시위 발생

- 2010년 12월 중 방글라데시 남동부 치타공(Chittagong) 지역의 한 한국의류전문업체 공장에서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폭력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섬유부문 근로자들의 대규모 폭력시위가 촉발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 치타공 수출가공무역지구 내에는 의류, 신발, 자전거 등을 생산하는 70여 개의 외국계 회사의 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23개의 한국 업체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최저숙련도 등급 근로자들의 월 최저 임금을 1,662타카에서 3,000타카(약 48,400원)로 인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숙련공들의 임금 인상은 각 회사에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였음. 임금 인상에서 제외된 숙련공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여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임.
- 금번 사태는 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자와 회사측 간의 근본적인 갈등 구조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노동자 시위 등으로 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외국 업체들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국 제조기업의 대 방글라데시 투자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 물가상승과 정부에 대한 반발로 전국적인 총파업 발생

- 지난 2월 초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높은 물가상승률과 정부의 대규모 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반발로 전국적인 총파업과 시위가 발생함. 이번 총파업은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것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음.
- 이번 파업으로 대외무역의 90%를 소화하는 치타공에서 화물 선적 작업이 중단되어 방글라데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3. 국제 관계

#### □ 미얀마와 영해 문제로 불편한 관계 지속

-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는 불법 국경 무역, 국경 분쟁지역인 벵갈만(Bay of Bangel)에서의 가스 탐사,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Rohingya) 난민의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의 송환 등의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2009년 10월초 미얀마 정부가 난민 탈출 방지 등의 이유로 방글라데시와의 국경지역인 나이캉차리 지역에 철조망을 세우고 병력을 증강하면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었음.
- \* 19세기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데려온 후손으로 알려진 로힝야족은 종교가 무슬림으로 미얀마 정부가 국적도 부여하지 않고 토지 소유, 이동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얀마 군정을 피해 1978년 및 1991년 수만명이 방글라데시로 이주하여 난민으로 생활하고 있음.

#### □ 인도와의 관계 개선

- 2010년 1월 중 양국간 테러 방지, 국경범죄 척결, 경제협력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민당 집권시절 소원했던 인도와의 관계가 현 정부 출범 후 개선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도 확산되고 있음.

#### □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강화 노력

- 방글라데시는 현재 가장 큰 교역 국가이자 주요 군수품 공급원인 중국과의 관계가 인도와의 교류 확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음. 앞으로도 방글라데시 정부는 벵갈만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인도와 중국 두 국가에서 무역과 원조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임.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 태도

<표 3> 주요 외채관련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sup>e</sup>	2011 <sup>f</sup>
총 외 채 잔 액	21,859	23,644	24,224	24,882	25,361
총외채잔액/GDP	31.9	29.7	27.1	24.9	23.0
D. S. R.	4.8	3.9	4.4	4.5	4.3

자료: IFS, EIU 및 GDF.

#### □ 안정적인 외채 구조

- 방글라데시의 총외채 규모는 2010년 말 250억 달러로 추정되나, 외채의 70%가 만기 30년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이며, 나머지 30%의 경우도 평균 대출기간이 20년 이상임.
- 2010년 말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5%,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5%로 추정되는 등 안정적인 외채 구조를 보이고 있음.

####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방글라데시는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국내채권 발행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외국인 증권투자 및 민간부분 해외차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외화유동성 관리를 수행하여 갑작스런 외부 요소에 의한 외화유출급증과 이에 따른 외채상환 불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임.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1. 3)	D1 (2010.8)
OECD	6등급 (2011. 4)	6등급 (2010. 4)
S&P	BB- (2010. 4)	-
Moody's	Ba3 (2010. 4)	-

- S&P와 무디스는 2010년 4월 처음으로 방글라데시 외화표시장기채권에 대해 각각 BB-(Stable)과 Ba3(Stable) 등급을 부여하였음.
- Euromoney: 116/186 (2009. 9) → 113/186 (2010. 3) → 98/186 (2010. 9)
- I.I.: 137/178 (2009. 9) → 137/178 (2010. 3) → 114/178 (2010. 9)
- I.C.R.G.: 90/140 (2010. 5) → 98/140 (2010. 11) → 107/140 (2011. 2)

###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민간부문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tradius: 승인 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 가능, 재량한도 없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12월 18일(북한과는 1973년 12월 16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1979), 문화협정(1979), 이중과세방지협정(1984), 투자보장협정(1988), 경제기술협력협정(1995)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5> 한·방글라데시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對 방글라데시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1,095	1,064	1,554	석유제품, 철강판, 종이제품
수 입	169	122	139	가죽, 동제품, 의류
합 계	1,264	1,186	1,693	

자료: 한국무역협회.

- 방글라데시와의 교역 규모는 2008년 12억 6,405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9년에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입 규모가 다소 감소하여 11억 8,57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석유제품, 철강제품 및 종이제품 수출의 급증으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여 양국간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함.
-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12월말 기준 195건, 2억 4,946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였음.

□ 집행 기준 제5위의 경협 지원 대상국

- 대 방글라데시 EDCF 지원금액은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총 11건, 2,045 억원을 기록, 제5위의 경협 지원 대상국임. (승인기준 총 15건, 3,836억원)

VI. 종합 의견

- 방글라데시는 의류산업의 수출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대외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 추세를 보임에 따라 5.8%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농업부문의 성장과 국내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 투자 활성화로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낮은 세금 징수율, 취약한 세수기반 등으로 세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증가 둔화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12월 총선에서 셰이크 하시나 총수가 이끄는 아와미연맹(AL)이 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쟁으로 인한 국정 불안 요소가 해소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취약한 재정수입에 따른 투자 재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양허성 차관을 위주로 국내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 및 물가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조사역 이 순 재 (☎02-3779-5705)  
E-mail: soonjaelee@koreaexim.go.kr